

반갑다 범우야! 자주 만나자~



"반갑습니다~!" 10월 29일 서울 동대부여고에서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수도권 사찰학생회 범우들이 레크리에이션으로 몸을 풀고 있다.



으랏차차! 범우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4명이 한조를 이뤄 목표지점까지 이동하는 '날으는 양탄자'는 호흡을 맞추는게 중요하다. 처음 만나는 범우들과 호흡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그동안 개별 사찰학생회 참석인원이 적고 미평한 공간이 없어 축구 한번 제대로 못했다는 불자 청소년들이 이날 마련된 천선 축구경기에서 원안이 높았다.



여범우들의 숨겨진 운동실력이 빛을 발했던 피구 대항경기.

수도권 사찰 학생회 연합 체육대회 열리던 날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만국기가 펄럭이고, 아이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이어달리기 계주를 하고 있다. 10월 29일 서울 동대부여고에서는 모처럼 가을운동회 광경이 펼쳐졌다. 학원과 학교만 오가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온통 어우러지는 한판 잔치다. 수도권 사찰학생회가 한자리에 모여 연합체육대회를 열었다. 수도권 사찰학생회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더욱 뜻 깊다.

#게임하고 춤추며 굳었던 몸 풀고...

이날 행사에 참가한 사찰은 관음사 구룡사 금강정사 금화사 능인선원 미타사 불광사 약사사 조계사 등, 어린이·청소년포교가 미약하다고 평해지는 서울에서 청소년포교에 뿌리내린 사찰들이었다. 멀리 경기도 부천 석왕사도 참여했다. 10개 사찰에서 참여한 200여명의 청소년들은 가지개를 썰듯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역동적인 몸을 마음껏 풀었다.

이날 체육대회는 동대부여고 체육관에서 2인1조 짝꿍게임, 어깨 주무르기, 댄스, 팀별 O·X퀴즈 등 레크리에이션 한마당을 펼치는 것으로 시작돼, 이후 4개의 팀으로 나눠 운동장에서 피구, 축구, 줄다리기를 릴레이 등을 하며 오후 4시까지 이어졌다.

특히 대회에 참가한 범우들이 손뼉이 기다렸던 것은 축구경기. 사찰 구별 없이 모두 섞여서 네 팀으로 구성해 벌인 축구경기에서 한참 뛰놀고 난 아이들은 입을 모아 "정말 이렇게 놀아보고 싶었다"고 외쳤다.

"우리 짝은 포교당이라서 근처에 뛰어놀만한 넓은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발피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어도 한 번도 못 놀아봤거든요.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공도 차고 어울릴 수 있으니까 좋아요!" (17·구룡사학생회 최원영군)

"축구 한번 하고 싶어도 우리 짝에 나오는 아이들 숫자만으로는 부족해서 축구하기 힘들거든요. 다 같이 모인다는 뜻 깊다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우리가 즐겨워야죠!" (19·능인선원학생회 홍심표군)

문수, 보현, 지장, 관음 4개 조가 팀을 이뤄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항한 '날으는 양탄자'에 참가했던 박가현 양(14·금강정사학생회)은 "처음 만나는 범우들이랑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라고 멋쩍어하기도 금세 다시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향해 달려 나갔다.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지만 이미 신행경력은 10년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 유치원 때부터 줄곧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다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범우들이 한 자리에 집결한 것은 처음 보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중무원의 원력이 불씨 되어

미래불교를 책임질 서울지역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사찰학생회 담당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특히 이날 체육대회의 중심에는 이 행사를 기획한 조계사 계층포교 담당자인 홍선영 중무원의 헌신이 있었다. 자신도 어린이법회·학생회 출신이라는 흥씨는 '청소년포교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다가 그 전까지 유지됐던 사찰학생체육대회를 다시 되살리고 싶다는 원력을 냈다.

90년대 당시 조계사 봉은사 불광사 금강선원 등 서울지역 대형사찰 4곳이 모여 해마다 사찰학생체육대회를 열었는데, 당시 학생회를 담당하던 원력 있는 지도법사, 지도교사들이 하나하나 학생회를 떠난 뒤 체육대회 행사가 유명무실해졌던 것이다.

흥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조계사와 이전 사찰학생회에 체육대회를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다. 내전 길에 4개 사찰만 모을 것이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 사찰학생회를 운영하는 사찰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연합행사를 기획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파리마타의 협조를 얻어 사찰학생회를 열고 있는 사찰마다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사찰이 한 자리에 모였다. 9월 24일 뜻을 같이 하는 사찰학생회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의 예비모임을 더 가졌다.

#수도권 사찰들 향후에도 연합행사 지속키로

반응은 대단했다. 저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던 지도교사들의 의견이 빚을 터지듯 흘러나왔다. 모두들 '이런 제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뿐만이 아니다. 지도 법사조차 없어 청소년들만으로 힘들게 법회를 꾸려가던 한 사찰 학생회에서는 연락을 받자마자 학생회장 "담당자는 아무도 없지만 나라도 꼭 지켜야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유일하게 학생신분으로 참가했던 구룡사 학생회장 임예찬(19)군이 바로 그다. 임군은 "어떻게든 사찰학생회를 회생시킬 방안을 마련해보고 싶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대부분의 불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자신이 불자라는 것을 숨기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불자 청소년들을 만나서 대단히 고무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회계사, 봉은사와 옥천암, 한마음선원, 수원포교당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향후 15여개에 이르는 수도권 사찰학생회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만나며 이번 행사 평가회의를 겸해 수도권 청소년포교전략을 논의하고, 연합행사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글=이은비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인천에선 어린이법회 체육대회

10월 29일 인천지역에서도 '천진불 어울림 마당'이라는 주제로 범우사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다. 인천불교회관과 범우사 어린이법회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소규모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겼다.

인천불교회관 측은 "처음 열리는 행사라 많은 사찰이 참가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수미정사, 보명사, 황룡사, 인천불교회관, 범우사 등 인천지역에서 어린이법회를 개최하는 5개 사찰 연합체육대회를 꾸준히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음사 구룡사 등 10개 사찰 200명 참가
90년대 맥 끊긴후 처음 열린 연합체육대회
"학교에선 종교 숨기고 살았는데... 힘나네요"

금강약돌 온열복대

열침의 효능 - Health Belt

★식약청 의료가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유통용기 A330550호
▶ 식약청 의료용 전자열대복대기 A330550호
▶ 전기용품 안전 인증번호 07233-50044호
▶ 전자파유해시험결과 전차파 인양인중
▶ 삼성화학대신보편적인 특약정 살균살균제

**배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암은 열에 약하며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 암 예방: 인체내 암세포는 100만 개에 달합니다. 다년간 건강 제품을 열침을 바치는 분에서는 복원에서 소량만이 생기는 복안 내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한 기능성 건강치료기 온열복대를 개발하였습니다. 온 열침은 34개의 금강약돌 불이 70-80℃이상의 고열을 발산시켜 착용시 복부(오장육부) 깊숙히 강력한 복사에너지와 원적외선을 전달하여 등과 같은 열침을 맞는 효과가 있으며, 체내의 노폐물 배출과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주어 만성위염, 소화불량, 생리통, 변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좋게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오늘날 각종 질병치료에 온열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암 등의 치료에도 온열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이에 상응되는 의료가라 할 수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변비, 요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전립선, 피부염, 배부자방, 배변,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 및 혈액순환개선, 신우요리, 스트레스성 증상, 숙취 등에 효과적이며, 특히 암예방과 전이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성 불자님들께서도 온열복대 체험 후 많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온열복대와 유사제품과의 비교 ●●●

비교내용	금강약돌 온열복대	유사제품(사라리, 맥반석 등)
전기열선온도	95-100℃	70℃미만
접촉면온도	1시간이내 70-80℃, 1시간후 80℃유지	50℃미만
원적외선	유효파장 4μm에서 9μm, 9μm에서 99%가 방사됨. 인체에 유익한 파장인 4μm, 9μm이 최강. 인체의 효능을 원스키 60여종 포함되어 있다.	유효파장 4μm에서 방사되는 파장이 99%인 파장, 9μm이 최강. 인체의 효능을 원스키 60여종 포함되어 있다.
물리온	높은 3000-3000개의 음이온이 나온다.	낮은 1000-1000개의 음이온을 낸다.

문의전화 : 금강당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